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연구

리 재 철*

차 례

- | | |
|---|----------------------------------|
| I. 서 언 | 권차, 부분 기호) |
| II. 역대서목에서 취한 동일주제내의 배열기준 | 3. 자모순 도서기호의 적용도서 |
| III.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저자기호법에 비한 적합성 | 4. 비평, 해설, 색인 |
| IV. 기존 서구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기호구조와 그의 한국도서관에서의 채용문제 | 5. 도서기호의 배열 |
| V. 필자의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 | VI.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구조에 대한 두어가지 변백 |
| 1. 기본기호(연대기호) | 1. 기본기호(연대기호)의 구조에 대한 변백과 그 적용범위 |
| 2. 부차적 기호(입수순 문자기호, 판, 차 | 2. 부차적 기호중 문자기호의 구조에 대한 변백 |
| | VII. 결 언 |

I. 서 언

최근의 급격한 학문의 발달과 문헌의 폭증은 도서기호법에도 크게 영향하여 그의 좀더 효율적인 것으로의 급속한 변혁을 강요하고 있다.

도서기호법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분류항목내에서의 다음 단계의 배열기준이 되는 요소를 기호화하는 일인데, 현대 도서관계에서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저자명순의 도서기호법을 가지고서는, 어떤 시기—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같이 1910년—를 분계점으로 삼아¹⁾ 신서집서와 고서집서로 크게 나눈다 할지라도 신서집서내에서 동일한 주제내에서의 도서들이 칠팔십년전의 구간서와 현재의 신간서가 자모순으로 함께 뒤섞여 배열되기 때문에, 독자가 최근의 이용가치가 있는 도서를 찾는 데나, 도서관측에서 ‘별무이용도서’

*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1. 李載鼎, “佛國에서의 古典籍分類考”, 민족문화, 창간호(1975. 12), p. 22-24: 고전적계서의 형성론

(別無利用圖書) 즉 별로 이용성이 없어진 낡은 도서를 서고 공간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제거 내지 별도 서고에 별치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저자기호법, 즉 동일한 주제내에서 저자명의 자모순으로 놓는 배열법은, 필자 생각에, 어떤 특정한 주제의 저자가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거나 변동이 완만하였던 19세기말, 늦어도 20세기 전반까지의 시대에 적합한 것이지 오늘날과 같이 미지의 낯선 새 저자가 때없이 속출하는 시대에는 그리 적합한 것이 못된다.

II. 역대서목에서 취한 동일주제의 배열기준

동일한 주제내에서의 도서기호법은 옛날엔 양의 동과 서를 막론하고 저자순으로 배열되었다. 다만 동양은 그 저자순을 선후학(先後學)을 기준으로 연대순으로 벌이었고, 서양은 이름을 기준으로 자모순으로 벌인 것만이 다를 뿐이다. 동과 서가 그렇게 배열기준을 크게 달리하게 된 것은 아마도 서로간에 문자의 다과와 배열의 난이도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십여개의 단음문자를 가진 서양은 자연히 배열하기 손쉬운 저자명의 자모를 바로 배열의 눈금으로 삼았을 것이고, 수만개의 한자를 가진 동양은 문자를 초월해서 손쉽게 배열의 눈금이 되는 연대순법을 채용하였을 것이다.²⁾

서양의 최초의 목록이라고 일컫는 3세기에 나온 칼리마쿠스(Callimachus)의 분류목록인 피나케스(Pinakes)의 배열법은 동일분류항목내에서 자모순으로 저자명을 놓고 동일한 저자내에서는 도서의 제작 연대순으로 놓았으며, 그후 서양목록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저자목록에서 동일 저자의 두개이상 의 도서를 그 제작 또는 발행된 연도를 기준으로 배열한데 반해서; 중국에서 서기 1세기에 나온 유향(劉向)과 유흠(劉歆)의 부자가 편찬한 별록(別錄)과 칠략(七略)³⁾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한서 예문지(漢書藝文志)와, 그후의 수서 경적지(隋書經籍志)를 비롯한 역대 정사의 경적지(經籍志) 내지 예문지(藝文志), 17세기의 천경당서목(千頃堂書目), 18세기의 사고전서

2. 李載詒, “韓國資料의 書誌의 整理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 도협월보, 제16권 제10호(1975. 12), p. 257

3.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上海: 商務印書館, 1937, p. 55-56: “同類之書 約略 依書代之先後爲次”. 이 책은 1971년에 臺灣商務印書館에서 臺4版이란 판명으로 영인간행된 것이 있음.

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 등의 대표적인 중국서목과, 한국에서 나온 17세기의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과 18세기의 규장총목(奎章總目)과 서서서목(西序書目), 19세기의 해동역사예문지(海東繹史藝文志), 18세기부터 20세기초에 걸쳐 편간된 “동국”(東國), “증정”(增訂), “증보”(增補)의 관계가 붙은 문헌비고(文獻備考)의 예문지(藝文志) 등은 다같이 동일한 분류항목내에서 저자의 선후학을 기준으로 연대순 배열법을 취하고 있다.

위의 서목중, 수서경적지(隋書經籍志) 이후에 나온 중국 정사의 예문지와 경적지 등 서지목록과 한국의 규장총목(奎章總目), 문헌비고 예문지(文獻備考藝文志) 등이 각저록의 저자표시에 있어 저자명 앞에 역조 국명(歷朝國名)을 관기한 것은 그것을 연대순 배열의 손쉬운 눈금으로 삼기 위했던 것으로 보이며, 천경당서목(千頃堂書目)에서 명청대(明清代)의 도서를 먼저 그 시대순으로 놓고, 그밖의 시대의 것은 宋·遼·金·元의 표목을 별행으로 내세워 그 시대순으로 저록을 배열함과, 심지어 그의 집부(集部)에서는 선후학의 기준을 과거급제년(科擧及第年)에 두어 그 급제연도를 “洪武辛亥四年”, “崇禎癸未科十六年” 식으로 표목화하여 연도별로 세분해서 저록을 배열한 것은 모두 이 연대순 배열을 손쉽게 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까지 중국을 중심한 동양에서는 동일분류 항목에서의 도서배열을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통례였던 것이다.

서양에서도 동일분류항목내에서 저자의 연대순으로 배열할 것을 주장한 이가 있었으니, 18세기 존슨(Samuel Johnson)이 바로 그이다. 그는 18세기 중엽에 대영박물관에 새로 입수된 할릭문고(Harleian Colletion)의 목록을 분류목록으로 편찬할 것과 매 분류항목내에서는 저자의 연령순으로 배열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⁴⁾

Ⅲ.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저자기호법에 비한 적합성

자모순배열법과 연대순배열법중 어느 것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분류학자에 의해 결정적 평가가 내려진지 오래다.

4. Norris, Dorothy May, A History of Cataloguing and Cataloguing Methods..., London: Grafton, 1939, p. 200

목록사학자 노리스(Dorothy May Norris)가 그의 「목록학사」에서 런던인스티튜션 도서관장서목록(Catalogues of the Library of the London Institution)의 소책자부(Pamphlet Section)의 저록배열이 동일주제명 표목하에서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합리적 배열법”(reasonable arrangement)이라고 평하였거니와⁵⁾, 1885년 최초로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발표한 비스코(Walter Stanley Biscoe)는 연대순법을 주장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독자가 서가 앞에 설때, 그는 그의 앞에 주제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대하게 된다. 왼쪽의 것은 그 주제에 관해 쓰여진 가장 오래된 도서가 놓이게 되어, 서가가 그 학문의 발전과정과 문헌의 추가과정을 증명해 주며; 오른쪽 것은 가장 새롭고, 가장 참신하고, 가장 적합한(the most authentic) 도서임을 알게 해준다. 이 배열법은 어떤 주제를 주의 깊게 연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마음에 들게하며, 그 어느 다른 도서기호법보다도 거의 모든 사람들의 선호를 받는다. 이것은 그 학문의 발달과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모든 학도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 연대순법이 지식추가방식과 합치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다른 순차법에 의한 목록에서와 같이 추가되는 정보가 앞서 나온것과 뒤섞이는 배열법이 아니다⁶⁾.

이 비스코의 연대순법에 대해 코마로미(John P. Comaromi)는 그의 「도서기호법」이란 저서에서, 비스코가 행한 연대순법의 우수성에 대한 변론은 오늘날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합당(true)한 것이라고 평가하고,⁷⁾ 그 학문의 사상발달단계를 알게하는 고안으로 가장 유용한 배열방식(the most helpful means of arrangement)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하였다.⁸⁾

한편 메릴(William Stelson Merrill)도 그의 연대순 기호법에 관한 논문에서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채용을 권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서는 각 분류항목 아래서 저자명의 자모순으로 배열하는 것보다 발행년에 의하

5. 위책, p. 223

6. Biscoe, Walter, "Chronological Arrangement on Shelves", Library Journal, V. 10(Sept.-Oct. 1855), p. 246, 247. John P. Comaromi의 Book Numbers, p. 45에서 재인용함. (주7참조)

7. Comaromi, John P., Book Numbers: A Historical Study and Practical Guide to Their Use,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81, p. 45.

8. 위책, p. 46

여 배열해야 최신간의 도서가 서가상의 맨 마지막에 놓이게 되어 독자의 눈에 쉬이 뜨이게 된다. 최신간의 도서는 그 주제분야에서 인지(人智)의 첨단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발행된 연도순으로 놓는 도서기호법을 권장하는 것이다.⁹⁾

라고 말하고, 이어서 “최신간 서적은 구간 서적보다 대체로 우량하다”라고¹⁰⁾ 덧붙였다.

분류학의 이론가인 랑가나단(Ranganathan)은 그의 저서 「도서관분류법 : 원리와 절차」와 「도서관분류법서론」에서 비스코의 연대순 도서기호법이 저자명순 도서기호법보다 도서기호로서의 기능을 훨씬 더 잘 충족시켜주는 방식이라고 평가하였으며,¹¹⁾ 그의 또다른 저서인 「콜론분류법」(CC)에서 실제 그 자신이 저자명순법 대신 발행년순법을 도서기호로 채용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CC에서는] 문학이나 어느 주제의 고전(classic)의 경우처럼 그 분류항목속에 저자의 요소를 집어 넣어서 구분하게 되어있는 분류항목 이외에서는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발행년이 저자명보다 좀더 적합(relevant)하고 유용한 특성을 지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서관이 성장하는 유기체(growing organism)라고 생각할때, 위에 말한 예외적 경우(문학작품과 고전)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류항목에서 도서의 가치를 결정지어주는 것은 그 도서의 발행년이 기준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최세분의 분류항목 안에서 가장 새로운 도서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 골동가와 같이 옛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오래된 도서에 관심을 갖게된다. 대부분의 일반도서는 발행된 지 10년 내지 20년이 지나면 일반독자에게 그 가치를 잃는다. 장구적 가치를 지니는 도서는 새로운 판이 나와 그것을 대체한다.

그러므로 최세분의 분류항목 안에서 도서의 연대순 배열은 많은 독자에게 검색의 시간을 절약시켜주며, 색출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다¹²⁾.

9. Merrill, William S., "Order of Books by Date under Subject", *Library Quarterly*, v. 4(1934): p. 282-284.

日譯: "出版日附順圖書排列法", 鈴木賢祐譯, *圖書館研究*, v. 10(1937): p. 491-492

10. 위갈, 日譯, p. 492

11. Ranganathan, S.R.,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2nd ed.,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57, p. 373

_____, *Library Classification: Fundamentals and Procedure*, Madarads: Madaras Library Association, 1944, p. 360

12. Ranganathan, S.R., *Colon Classification*, 6th ed. completely rev.,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1961, pt. 1, p. 10

일본의 분류학자 森 耕一도 그의 저서 「분류작업」(分類作業)에서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채용하면 구간서와 신간서를 확연히 구분지어 놓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대순법을 좋게 평하고 있다.

...대체로 새 출판물이 좋다. 새로운 것일수록 새로운 사실과 자료가 추가되어 있고, 새로운 학설이 소개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그 이전의 주목할만한 문헌이 참고 문헌으로서 소개되어 있다.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채용하면 서가작업면에서도 이동과 삽입의 작업량이 극소화 된다. 이런 관점에서 연대순법은 편리하다.¹³⁾

필립스(W. Howard Phillips)도 「도서분류법입문」이란 저서에서, 동일분류항목에서 두권이상의 도서가 있을 경우의 배열법으로 “연대순법이 가장 논리적인 것이며, 자모순법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¹⁴⁾ 말하고 있다.

듀이(Mevil Dewey)는 한때 도서기호 입수순법을 선호한 듯 보이는데, 그것은 그의 「십진분류법」(DDC) 초판의 서설의 도서기호항목에서¹⁵⁾, 입수순에 의한 개별 방식만 설명하고 다른 도서기호법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는 훨씬 후관에 가서야 주제의 성격에 따라 저자명순법과 연대순법을 적절히 적용해 쓰는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듀이는 DDC 10판(1919년판)의 서설에서 입수순법과 아울러 저자기호법과 연대순 기호법도 소개하였는데, 거기서 그는, 연대순 기호법에 의해 도서를 서가에 배열해 놓으면, 왼쪽에는 가장 오래된 도서를, 오른쪽에는 가장 새로운 도서를 놓이게 하므로써 그 주제의 발달과정을 알 수 있게하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학분야에는 이 연대순법이 각별한 가치를 지니며, 문학분야에는 저자명순법이 적합하고, 입수순법은 단순한 점은 있으나 그리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된다고¹⁶⁾ 평하였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DDC 10판과 더불어 13판(1932년판) 그리고 14

13. 森 耕一, 分類作業. 大阪: びぶりお そさいえて, 1956, p.146

14. Phillips, W. Howard, A. Primer of Book Classification, 5th ed., London: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s, 1961, p.179

15. Dewey, Melvil,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for a Library, Amherst, Mass., 1876, p.7

16. Dewey, Melvil, Decimal Classification, Ed. 10, rev., Essex Co., N.Y.: Forest Press, 1932, p.30-31

관(1942년판)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13판과 14판에는 그 10판의 것과 똑같은 문안의 설명이 적혀있다. 한편, 동 10판과 13판의 권말에는 비스코(Biscoe)의 연대기호표와 올린(Olin)의 저자기호표가 부록되어 있음을 본다.

코마로미(Comaromi)는 그의 「도서기호법」이란 저서에서 현재 모든 분류 항목에 그의 적용이 유행되고 있는 저자명순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은 모든 주제(분류항목)에서 그 주제에 관한 도서들이 저자명(성, surnames)의 자모순으로 조직되는 것이 가장 낫다는 그릇된 믿음에 빠져서는 안된다.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어떤 분야에서는 자모순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용한(useful) 것이겠으나 기술분야와 순수과학분야에서는 발행년에 기준한 연대순 배열이 학도들이 그 분야의 학문의 발달상태를 파악하는데 훨씬 생산적인 조직법이다. 그들이 무엇인가 연구하고자 할때, 그 주제분야의 학술활동에 관해 무엇이 가장 알찬 내용(최신의 정보)을 담고 있는 것인가를 알고자 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한 도서기호법으로는 출판물의 발행년에 의한 구분법이 가장 유익한 방법인 것이다.¹⁷⁾

어떤 주제의 발달과정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용성 있는 최신 자료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비단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이의 일만이 아니다. 19세기 말까지의 과학기술의 발달속도 이상으로 오늘날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학문도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어 특별한 고전적 저작을 제외하고는 발행된 지 수십년이 지난 도서는 관심밖의 도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스텐스트론(Ralph H. Stenstrom)은 그가 편찬한 「도서관 관종간의 협력관계문헌목록」(Cooperation between types of libraries, 1940~1968)의 저록들을 년·월 순으로 배열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가장 최근의 발달과정에 관심을 가진 독자로 하여금 직접 그 연도의 저록에 접근시키기 위함이다.”라고¹⁸⁾ 설명하고 있으며, 일본의 稻村徹元도 그의 「색인이야기」(索引の話)의 권말에 붙힌 “참고문헌목록”을 연대순으로 엮어놓고 그 법례적 서두에서 “각 문헌의 배열은 대부분 발표(간행)된 년·월·일 순으로 하여 색인 연구자의

17. Comaromi, 앞책 (1981), p. 45

18. Stenstrom, Ralph H., Cooperation between Types of Libraries, 1940-1968 : An Annotated Bibliography,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0, p 5

전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라고¹⁹⁾ 기술하였다.

따라서 20세기말엽에 놓여있는 오늘날의 주장은 비스코나 듀이가 살던 때의 주장과는 달리 연대순법을 과학기술분야에만 국한시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주제를 빼놓고는,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분야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사회과학과 인문과학분야의 도서 이용도를 조사한 미들스워트(L.E. Middleswort)와²⁰⁾, 경제학 도서와 튜튼어 및 튜튼문학의 도서 이용도를 조사한 퍼슬러와 사이몬(H.H. Fussler & J.L. Simon)과²¹⁾, 국내에서 정치학과 사회학의 도서 이용도를 조사한 양병훈은²²⁾ 다같이 발행년이 오래된 도서일수록 그 이용률 내지 대출요구가 떨어지며, 최근의 자료일수록 이용의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오늘날의 도서관은 어느 도서관을 막론하고 서가공간의 문제로 골치앳고 있는데, 제인(Aridam Jain)과²³⁾ 라인쿨러(F.F. Leinkuhler)와²⁴⁾ 허버드(W. J. Hubbard)가²⁵⁾ 말한 것처럼 도서의 발행년은, 어느 학문분야임을 막론하

19. 稻村徹元, 索引の話,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77, p. 157

20. Middleswort, L.E., A Study of Book Use in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Master's Thesis, Chicago: Graduate Library School, University of Chicago, 1951. F.W. Lancaster의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Library Services, Washington Information Resources Press, 1977, p. 180에서 인용.

21. Fussler, H.H. & Simon, J.L., Patterns in the Use of Books in Large Research Librar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p. 14-34

22. 양병훈, 대학도서관장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도서관 정치학·사회학 집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85년 2월, p. 21, 48

23. Evans, G. Edward G., Developing Library Collections.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79, p. 229: “[In] Aridam Jain's 1968 investigation... He hoped to indicate that the age of book i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both in predicting notes of monograph usage and in deciding which books should be taken from the first level access and transferred to storage.”

24. Leinkuhler, F.F., “System Approaches to Library Management.” In: Quantitative Measurement and Dynamic Library Service, edited with a preface and introduction by Ching-chih Chen, Phoenix: Oryx Press, 1978, p. 54: “...it is possible to predict how much circulation demand will be generated by a depository collection where age is the determining factor.”

25. Hubbard, W.J., Stock Management,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1, p. 51: “Date of publication can serve as guideline for selection for storage.” p. 68: “A specific imprint date may serve as indication of whether as item is shelved in storage.”

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제적(*weeding*)하고 퇴장배치(*storage*)하는데 “결정적 요소”(determining factor) 내지 훌륭한 가이드라인의 구실을 할 것이다.

N. 기존 서구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기호구조와 그의 한국도서관에서의 채용문제

서가분류의 마지막 구분인 도서기호로서의 연대순법은 1885년의 비스코(*Biscoe*)의 것과,²⁶⁾ 1906년의 브라운(*Brown*)의 것,²⁷⁾ 1912년의 메릴(*Merrill*)의 것,²⁸⁾ 그리고 1933년의 랑가나단(*Ranganathan*)의 것이²⁹⁾ 있다. UDC의 연대구분보조표(*Common Auxiliaries of Times*)를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하나로 드는 이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보조표 설명에 있듯이 어떤 주제의 연대구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도서의 발행년을 기준으로 한 도서기호로써 만든 것이 아니므로,³⁰⁾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논의에서 거론될 것이 못된다.

그런데 상기한 비스코, 브라운, 메릴, 랑가나단의 연대순 기호법들은 기호가 로마자만으로 이루어졌거나, 숫자에 로마자가 섞인 것이므로 목록기입을 한글타자로 하는 도서관에서는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능률적인 것이 못된다. 그것은 도서기호가 포함된 청구기호를 찍는데 로마자 타자기에 또 한번 넣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비스코와 랑가나단의 기호법은 각기 로마자 한자에 숫자 하나로 구성되는 짝막성이 있는 기호(예 : 1985년을 기호화하면, 비스코 것으로는 Y5, 랑가나단 것으로는 M5)이긴 하나, 그 적용 연한이 비스코의 것은 서기 1999년까지로 막혀있고, 랑가나단의 것은 서기 2100년 이후는 문자 두자에 숫자 하나

26. Biscoe, 앞글(1855), p. 246-247 (참고 : 이표는 DDC 10판부터 13판까지의 권말부록에도 그의 전표가 실려 있음)

27. Brown, James Duff, *Subject Classification*, 2nd ed., 1904, p. 29-32. (참고 : 이책의 초판이 1906년에 발행되었으니 그의 연대순 도서기호법도 1906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28. Merrill, William S., “The Merrill Book Numbers”, *Public Libraries*, v. 17 (April 1972): p. 127-129 (참고 : 메릴은 이 논문에서 세계의 도서기호를 3발표하였는데 그 표1은 저자명순기호표(01-99의 두자리표), 표2는 정기간행물을 위한 표제의 자모순기호표(01-99진두자리표)요, 표3은 연대순 기호표임.)

29. Ranganathan, 앞책(1961), pt. 1, p. 12-17

30.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2nd English full ed., London: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1974, vol. Auxiliaries, p. 23

를 갖게 되어 있어(예 : 2105년은 ZA5, 2185년은 ZJ5) 배열의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브라운의 기호법은 문자만으로 되어 있는데다 그에 의해 기호화할 수 있는 연한이 서기 2125년까지로 막혀 있고(예 : 1445년은 aa, 1985년은 up, 2125년은 zz), 메릴의 기호법은 서기 2000년까지는 순 숫자 기호만으로 되어 있으나(예 : 1985년은 985), 그보다 이후, 즉 2001년부터는 문자기호 하나에 숫자기호 세자리(예 : 2005년은 A005, 2085년은 A085, 2985년은 A985)를 매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로마자를 사용하는 서양도서관이나, 한국도서관이라도 서양도서관만을 가진 도서관 또는 동서의 편목시 표목(검색어)의 표기를 한글 대신 로마자로 표기하는 도서관에서는 그의 적용성이 있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한글로 편목하는 도서관에서는 한글타자기에 넣어 적다가 로마자 타자기로 또한번 넣어 적는 번거로움 때문에 부적당한 기호법이라 하겠다. 현대의 기호법은 파머와 웰즈(Bernard I. Palmer & A.J. Wells)나 필립스(Phillips)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자하기 쉬운 것”이 기호로써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³¹⁾

한국 도서관들에는 거의 모두 동서와 더불어 양서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기호로서의 연대기호는 동서와 양서에 공용되는 아라비아 숫자만의 기호를 채용하는 것이 좋다. 아라비아숫자 기호는 문자기호가 가져오는 불편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설혹 한글·로마자 공용의 타자기가 출현하여 —이미 전자타자기나 컴퓨터 단말기의 분야에는 출현하였지만— 쓴다 할지라도 도서관기호로 로마자가 섞인 것을 써서 한국도서관의 편목시에 청구기호를 적을 때마다 로마자로 전환하는 키를 제동했다 풀었다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기호의 짧막성(brevity)을 갖기 위해 로마자만의 기호 또는 로마자가 섞인 기호로 전환해서 기호화 한다는 것은 연대기호의 경우 의미성을 잃게 하는 희생도 너무 크다.

그래서 필자는 발행년의 햇수 자체를 끝에서 두자리 내지 세자리를 취하여 쓰는 기호법을 마련하여 주제(분류항목)의 성격에 따라 그것을 자모순 저자

31. Palmer, Bernard I. & Wells, A.J., *The Fundamentals of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Allen & Unwin, 1951, p. 62.
Phillips, 앞책(1961), p. 43

기호법과 선별해 쓰는 법칙을 작성해 보았다. 다음장(제 V 장)에 그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V. 필자의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

1. 기본기호

도서기호는, 3조의 각항에 해당되는 도서를 제외하고, 연대기호를 그의 기본 기호로 삼는다.

1.1 (연대기호) 연대기호는 그 도서의 목록기입에서 채기되는 발행년을 서기와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하여, 1900년대의 것은 그의 마지막 두 자리 숫자(십대이하의 숫자)를, 2000년대의 것은 마지막 세자리 숫자(백대이하의 숫자)를 기호로 삼아 매긴다. 이때 양서는 기호 말미에 “a”자를 덧붙여서 동서와 구별한다(2.1도 참조).

발행년	기호
1980 (동서)	80
1983 (동서)	83
1983 (양서)	83a
2000 (동서)	000
2015 (동서)	015
2129 (동서)	129
2129 (양서)	129a

1.2 (추정발행년) 발행년도 표시가 없는 도서는 추정되는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기되, 그 추정년이 두해 이상의 폭을 가진 것은 그중 최근의 것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기고, 서기로 십년대까지만 추정되는 것은 입수년 이전 십년대의 것까지는 각 십년대의 마지막 해인 “-9”를, 입수년이 속하는 십년대의 것은 그 입수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긴다.

추정발행년	기호
[1983]	83
[1978년경]	78
[1980년 아니면 1981]	81
[1975 - 1982년 사이]	82

(1975년부터 1982년 사이의 어느 해)	
[197-](1983년에 수입된 경우)	79
(1980년대에 발행된 것은 확실하나 그중 어느 해인지 불확실한 경우)	
[198-](1983년에 수입된 경우)	83
(1980년대에 발행된 것은 확실하나 그중 어느 해인지 불확실한 경우)	

1.3 (다른 판의 연대기호) 동일저자의 판이 다른 것은, 개정판 뿐만 아니라 번역판, 주해판 등도 판이 다른 것으로 간주하여, 그 특정판의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긴다.

	기 호
경제원론/조순 저. — 1974	74
경제원론/조순 저. — 증보판. — 1976	76
경제원론/조순 저. — 진정판. — 1979	79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William A. Katz. — [1st ed.]. — 1969	69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William A. Katz. — 4th ed. — 1982	82
참고봉사/William A. 카아즈 저. — 노옥순 역. — 1972	72
(대본이 된 원서는 :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William A. Katz. — [1st ed.]. — 1969)	
Early Christian doctrines / by J.N.D. Kelly. — 1958	58
Early Christian doctrines / by J.N.D. Kelly. — 1960	60
고대기독교교리사/J.N.D. 켈리 저 ; 김광식 역. — 1980	80
(대본이 된 원서는 : Early Christian doctrines / by J.N.D. Kelly. — 2nd ed. — 1960)	

별법 1 :

개정판은 그 특정판의 발행년(그 개정판으로서의 최초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기고, 번역판, 주해판, 해설서류는 그 대본이 된 원서의 해당판의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긴다. 다만, 후자의 경우, 그 저작에 대한 분류번호가 분류표상에 특정하게 마련되어 있어 그것에 의해 분류 번호를 매겼을 때에는 그 특정판(번역판이나 주해판)의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긴다.

	<u>기</u> <u>호</u>
경제월론/조순 저. — 1974	74
경제월론/조순 저. — 증보판. — 1976	76
경제월론/조순 저. — 전정판. — 1979	79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William A. Katz. — 1969	69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William A. Katz. — 4th ed. — 1982	82
참고봉사/William A. 카아즈 저; 노옥순 역. — 1972	69
(대본이 된 원서는 :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William A. Katz. — [1st ed.]. — 1969	
Early Christian doctrines / by J.N.D. Kelly. — 1958	58
Early Christian doctrines / by J.N.D. Kelly. — 1960	60
고대기독교교리사/J.N.D. 켈리 저; 김광식 역. — 1980	60
(대본이 된 원서는 : Early Christian doctrines / by J.N.D. Kelly. — 2nd ed. — 1960)	
다만 :	
신약성서 : 공동번역. — 1977	77
(대본이 된 원서는 The Greek New Testament 1966인데, 이를 분류하는 도서관이 DDC에 의해 분류하는 데 한국어 신약성서의 번호가 DDC에 225.5957로 배정되어 있을 경우)	
듀이십진분류법 및 상관색인/멜빌 듀이 원안. — 개정표준 제15판/DDC 한국어판 번역심의회 역편. — 1959	59
(대본이 된 원서는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 devised by Melvil Dewey. — Standard 15th ed. rev. — 1952인데, DDC를 채용하는 도서관에서 DDC(19판) 표상에 025.431이 듀이십진분류법의 항목으로 배정되어 있을 경우)	

별법 2 :

동일저작의 다른 판은, 개정판, 번역판, 주해판을 막론하고 그 원저작의 초판의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긴다. 다만 분류상에 그 원저작에 대한 특정한 번호가 마련되어 있고 그 번호에 의해 분류번호를 매길 경우에는, 개정판은 그 특정판의 발행년을, 번역판·주해판·해설판은 그 번역서·주해서·해설서의 초판의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긴다.

	<u>기</u> <u>호</u>
경제월론/조순 저. — 1974	74

경제원론/조순 저. — 증보판. — 1976	74
경제원론/조순 저. — 전정판. — 1979	74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William A. Katz. — 1969	69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William A. Katz. — 4th ed. — 1982	69
참고봉사/William 카아즈 저; 노옥순 역. — 1972	69
(대본이 된 원서는: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William A. Katz. — 1969)	
Early Christian doctrines / by J.N.D. Kelly. — 1958	58
Early Christian doctrines / by J.N.D. Kelly. — 2nd ed. — 1960	58
고대기독교교리사/J.N.D. 켈리 저; 김광식 역. — 1980	58
(대본이 된 원서는: Early Christian doctrines / by J.N.D. Kelly. — 2nd ed. — 1960)	
다만	
논어신석/이가원 저. — 1956	56

1.4 (발행년이 다른 다본권과 일반도서적 성격을 띤 연속물) 두권 이상으로 이루어진 도서 및 일반도서적 성격을 띤 연속물을 한데 모을 경우에는 그 최초로 발행된 권책의 발행년을 기준으로 연대기호를 매긴다. (2.3도 참조)

	<u>기</u> <u>호</u>
세계문학전집. — 서울: 을유문화사	
1. 젊은 사자들, 1959	59
16. 쿠오바디스, 1962	59
30. 파우스트; 젊은 베르텔의 슬픔, 1965	59
한국사/진단학회. — 서울: 을유문화사	
고대편/이병도, 김재원 저. — 1959	59
중세편/이병도 저. — 1961	59
근대전기편/이상백 저. — 1962	59
근대후기편/이상백 저. — 1965	59
최근세편/이선근 저. — 1961	59
현대편/이선근 저. — 1963	59
연표/진단학회 편저. — 1959	59
Advances in librarianship	
첫째권 1970	70
열한번째권 1980	70

2. 부차적 기호

도서기호에서 연대기호 다음에 오는 모든 기호는 부차적 기호라 이른다. 부차적 기호에는 입수순기호, 편차기호, 본복기호가 있다.

2.1 (입수순기호) 동일한 분류항목내에서 동일한 연대기호를 갖는 도서가 두 개이상 있을 경우에는, 두번째 들어온 것부터 입수순으로 동서는 “가”부터의 한글 기본음절표(이른바 반절본문 : 초성자음 14자와 모음 10자만을 결합한 음절철)의 음절자를, 양서는 “b”부터의 로마자 자모를 연대기호에 덧붙여서 개별하되 27번째부터의 것에 대해서는 za ... zz로, 53번째부터의 것에 대해서는 zza ... zzz로 매긴다.

	기 호
경제학원론/김육근 저, 1981	81
분석경제학/홍종인 저, 1981	81가
경제학원리/최환열 저, 1981	81가
Centural economics /Richard L. Brinkman, 1981	81a
Development economics /Gunning Collier, 1981	81b
Readings in economics /American Institute. -- 2nd ed., 1981	81c

별법

(저자기호) 동일한 분류항목내에서 동일한 연대기호를 갖는 도서가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두번째 이하 들어온 도서에 대해 목록기술에서 저자표시의 첫머리에 오는 저자의 표목으로 올릴 형의 이름(저자명이 없는 도서는 서명)의 첫자(동서는 첫음절철, 양서는 첫자모)를 연대기호에 덧붙여서 개별한다. 다만 저자주기입법을 취하는 도서관에서는 기본기입의 표목의 첫자를 이 부차적 저자기호로서 매긴다.

	기 호
경제학원론/김육근 저. -- 1981	81
경제원론/김용국 저. -- [개정판. -- 1981]	81김
분석경제학/홍종인 저. -- 1981	81홍
경제원론/홍우 저. [개정판. -- 1981]	81홍
경제학원리/최환열 저. --1981	81최
경제원론/최호진 저. -- [전정판, 1981]	81최

2.2 (판기호) 동일저작의 개정판, 번역판, 주해판과 같은 다른 판을 1.3조의 원법에 의거하여 그 특정판의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겼을 경우에는 판기호의 매김이 필요치 않으나, 1.3조의 별법에 의거하여 원저작의 초판의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기거나(1.3조의 별법 2참조), 번역서, 주해서류의 대본이 된 원서의 해당판의 발행년을 대상으로 연대기호를 매길 경우(1.3조의 별법 1참조)에는 그 개정판, 번역판, 주해판의 발행년의 서기연도의 숫자를 그대로 판기호로 삼아 매긴다.

1.3조의 별법 2에 의거하여 연대기호를 매겼을 경우의 판기호 :

	기 호
경제원론/조순 저. — 1974	74
경제원론/조순 저. — 증보판. — 1976	74 1976
경제원론/조순 저. — 전정판. — 1979	74 1979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William A. Katz. — [1st ed.]. — 1969	69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William A. Katz. — 4th ed. — 1982	69 1982
참고봉사/William A. 카아즈 저; 노옥순 역. — 1972	69 1972
Early Christian doctrines / by J.N.D. Kelly. — [1st ed.]. — 1958	58
Early Christian doctrines / by J.N.D. Kelly. — 2nd ed. — 1960	58 1960
고대기독교교리사/J.N.D. 켈리 저; 김광석 역. — 1980	58 1980

2.3 (권차기호) 권차는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하여 연대기호(또는 연대기호와 입수순 기호의 복합기호)의 다음칸(줄)에 기재한다. 판기호가 없는 것은 판기호 다음칸(줄)에 권차기호를 기재한다. (1.4도 참조)

	기 호
전국도서관실태조사, 상/한국도서관협회, 1971	71 1
전국도서관실태조사, 하/한국도서관협회, 1971	71 2
세계문학전집. — 서울: 을유문화사	
1. 젊은 사자들, 1959	59 1
16. 쿠오바디스, 1962	59 16
30. 파우스트; 젊은 베르텔의 슬픔, 1965	59 30

외국고서목록, 1/국립중앙도서관, 1976		76 1
외국고서목록, 2/국립중앙도서관, 1976		76 2
전국도서관실태조사, 상/한국도서관협회. — 1971		71 1
전국도서관실태조사, 하/한국도서관협회. — 1971		71 2
	1.3조의 원법에 의할 때	1.3조의 방법에 의할 때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William A. Katz — 4th ed. — 1982. — Vol. 1	82 1	69 1981 1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 William A. Katz. — 4th ed. — 1982. — Vol. 2	82 2	69 1982 2

단행본적 성격을 띤 다권 연속물로서, 권차로 연도표시만 있는 것은 그 연도를 서기와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하여 그대로 권차기호화하여 매긴다.

	기	호
Advances in librarianship, 1970	70	
Advances in librarianship, 1980	70	1980
Advances in librarianship, 1982	70	1982

복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권차기호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하여 큰 단위의 것과 작은 단위의 것 사이를 긴붙임표(-)로 연결하여 기재한다.

권차표시	기	호
제 1기 제 1권	1—	1
제 1기 제 20권	1—	20
제 2기 제 1권	2—	1
제 2기 제 15권	2—	15
전기 제 1권	1—	1
후기 제 20권	2—	20

별 법

다만 그중 큰 단위의 권차명칭이 “전기”, “후기”, “속”일 때에는 이를 숫자로 환산하여 기호화하는 대신 그 명칭의 첫자를 가지고 “전”, “후”, “속”과 같이 기호화 할 수 있다.

	기 호
세계문학전집. — 서울: 정음사	
전기 1: 일리어드; 오딧세이, 1958	58 전1
전기30: 이방인; 케스트; 전락; 외, 1969	58 전30
후기 1: 고대신화, 1963	58 후1
후기20: 그때 다시는 고향에 못가리, 1966	58 후20

2.4 (복본기호) 같은 도서의 복본은 두번째 이후 들어온 것에 대하여 “2”부터의 일련번호를 기호로 삼아 동서는 등호(=)를, 양서는 “c”자를 앞세워 연대기호(또는 연대기호와 입수순기호)의 다음 칸에 기재한다. 권차기호가 있는 도서의 복본은 그 권차기호칸의 말미에 이 복본기호를 기재한다.

78	78가	82	83
=2	=2	16=12	2-2=2

3. 자모순 도서기호법 적용도서

아래와 같은 도서는 먼저 자모순 도서기호(이른바 저자기호)를 매기고 난 다음에 연대기호를 매긴다. 이차적으로 연대기호를 매겨도 개별이 안되는 것은 2조의 부차적 기호를 덧붙여서 개별한다.

3.1 (전기 및 인물평) 개인의 전기와 인물평은 피전자나 피비평자의 성명을 대상으로 자모순 도서기호를 매기고 난 다음에 연대기호를 매긴다. (주로 DDC의 920대와 표준구분 -092를 갖는 분류항목 및 180-190대의 표준구분 -01을 갖는 분류항목, 700대와 800대에 들어가는 도서, KDC로는 990대와 형식구분 -099를 갖는 분류항목 및 150-160대의 일반 형식구분 -01을 갖는 분류항목, 600대와 800대에 들어가는 도서) 이때 DDC 920대와 표준구분 -092가 붙는 분류번호(KDC로는 990대 및 형식구분 -099가 붙는 분류번호) 이외에서는 한글숫자기호에는 “ㄱ”, 로마자숫자기호에는 “Y”를 앞세워 연대기호를 매긴다.

리제철5표 <u>Cutter-Sanborn</u>	연세대도 <u>Cutter</u>
--------------------------------	-----------------------

성웅 이순신/강철원 저. — 1972

이'56 72	이순신 72
------------	-----------

인간이순신/김의환 저. — 1972	이'56 72가	이순신 72가
Yi Sun-shin : a national hero of Korea / by Cho Sung Do. — 1970	이'56 70a	이순신 70a
Abraham Lincoln : a biography / Benjamin Thomas. — 1952	L736 52a	L6328 52a
링컨의 일생/김동걸 저. — 1976	L736 76	L638 76
춘원연구/김동인 저. — 1976	이'15 ㄱ56	이광수 Y56
춘원이광수/박계주, 과학송 공저. — 1962	이'15 ㄱ62	이광수 Y62
헤밍웨이문학의 연구/김병철 저. — 1968	H488 Y68	H373Y 68
Ernest Hemingway : the man and his work / John K.M. McCaffery. — 1969	H488 Y69	H373Y 69
Goya / F.Crastré. — 1912	G724 Y12	G74Y 12

	<u>리제철5표 Cutter-Sanborn</u>	<u>연세대도 Cutter</u>
이당 김은호와 후소희/김형순 저. — 1977	김68 ㄱ77	김은호 Y77
추사 난화의 미학적고찰/박근술. — 1976 추사는 김정희의 호임	김73 ㄱ76	김정희 Y76
퇴계의 철학사상연구/유정동. — 1975	이'95 ㄱ75	이황 Y75
칸트의 생애와 철학/최재희 저. — 1977	K16 Y77	K135Y 77
The living thought of Kant / by Julien Benda. — 1940	K16 Y40	K135Y 40
듀이철학/김재만 저. — 1980	D519 Y80	D515Y 80

3.2 (족보, 세록, 가문의 인물지) 어떤 특정한 성씨의 족보·세록이나 가문의 역사·인물지(문헌록)등은 그 대상이 된 성씨에 의하여 자모순 도서기호를 매기고 난 다음에 연대기호를 매긴다. 이때 “본관·성씨”의 순위로 되어 있는 대상어는 이를 “성·본관”의 순위로 도치하여 기호를 매긴다.

	<u>리제철5표 Cutter-Sanborn</u>	<u>연세대도 Cutter</u>
양주조씨족보/양주조씨종친회. — 1980	조63 80	조양주 80

(자모순 도서기호 매김의 대상어 형식은 “조양주”)		
조양조씨세록/조양조씨화수회. — 1980	조75 80	조조양 80
(자모순 도서기호 매김의 대상어 형식은 “조조양”)		

3.3 (조직체에 관한 도서) 개개 조직체(단체·기관등)에 관한 도서는 주제의 대상이 된 그 조직체명에 의해 자모순 도서기호를 매기고 난 다음에 연대기호를 매긴다. (DDC의 060과 표준구분 -06을 갖는 분류항목, 017 (KDC로는 060과 표준구분 -06을 갖는 분류항목, 018-019)) 및 각 조직체를 내포하거나 구분이 필요한 주제번호)

	리재철5표 Cutter-Sanborn	연세대도 Cutter
한국도서관협회 삼십년사/한국도서관협회 삼십년사 편찬위원회 편. —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7	020.622 한16 77	020.622 한국도 77
(자모순 도서기호 매김의 대상어는 “한국도서관협 회”. 예시된 분류번호는 DDC 19판 번호임)		
국립중앙도서관사/국립중앙도서관. — 서울: 동도 서관, 1973	027.51 국29 73	027.51 국립중 73
(자모순 도서기호 매김의 대상어는 “국립중앙도서 관”. 예시된 분류번호는 DDC 027.5919를 고쳐 매 긴 것임)		
한가람 봄바람에 : 이화 100년야사/민숙현, 박해경 공저. — 서울: 지인사, 1981	378.51 이'95 81	378.51 이화여 81
(자모순 도서기호 매김의 대상어는 “이화여자대학 교”. 예시된 분류 번호는 DDC 378.519를 고쳐 매 긴 것임)		
한국은행 이십오년사/한국은행 조사부 제 1부. — 서울: 동부, 1975	332.11 한16	332.11 한국은
장서목록, 동양서/국립중앙도서관. — 1982	017.1 국29	017.1 국립중

3.4 (지방지, 지방사) 지방지·지방사를 분류할 때 분류표상에 그 지방(지
역에 대한 항목이 특정하게 세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위 또는
복합지방단위까지의 분류번호를 매긴 뒤에 그 특정한 지방의 지방명(지역
명))을 대상으로 자모순 도서기호를 매긴다. 연대기호는 그 다음 단계로
매긴다.

	리제철5표	연세대도
공주군지/공주군지편찬위원회 편. — 1979 (KDC에서와 같이 ‘공주군’에 대한 특정한 번호가 없고, “911.79 대천시, 대덕군, 금산군, 논산군, 부여군, 공주군”과 같이 여러군이 복합된 분류항목만 있을 경우. 국회도서관과 연세대중앙도서관의 DDC 전개표는 “도”단위까지만 구분하고 그 이하의 지역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경우도 ‘군’ ‘시’의 단위명에 의해 자모순 도서기호를 매긴다)	공7 79	공주군 79
인천시사/인천직할시. — 1973 (KDC에서와 같이 “911.55 인천시(제물포), 부천시, 부천군”로 되어 있을 경우. 상기에의 주 참조)	인8 73	인천 73
우리고장 인천/인천직할시. — 1982	인8 82	인천 82

비 표

경기도지/경기도지편찬위원회. — 1957 (KDC에서나 국회도서관과 연세대도서관의 DDC 전개표에서와 같이 경기도가 911.5(KDC)와 951.92(DDC)로 특정하게 배정되어 있을 경우)	57	57
---	----	----

3.5 (개인의 문학작품, 예술작품 및 두드러진 철학자·사상가의 논저) DDC 800대와 700대(KDC 800대와 600대)에 들어가는 도서로서 개인의 문학작품, 악보를 포함하는 예술작품 및 DDC 180-190대(KDC 150-160대)와 표준구분 -01을 갖는 분류항목에 들어가는 도서로서 특정한 분류항목을 세울만한 철학자·사상가의 논저는 먼저 자모순 도서기호로서 저자기호(기본기호)와 서명기호(부차적 기호)를 함께 매기고, 그 다음에 특정관의 연대기호를 매긴다.

	리제철5표 Cutter-Sanborn	연세대도 Cutter
무경/이광수. — 1956	이'15무 56	이광수 무-56
The old man and the sea / Ernest Hemingway. — 1952	H488o 52a	H373o 52a
바다와 노인/어네스트 헤밍웨이 저; 장봉화 역. — 1953	H488o 53	H373o 53
Sonata für Klavier and Violincello / Ludwig van Beethoven. — c1971	B415s 71a	B393s 71a

역사철학강의/헤겔 [저]; 김중호 역. — 1982 H462v H361v
82 82
원서명은: 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

3.6 (1900년보다 이전에 나온 도서 및 그의 영인본·신판·번역서·주해서)
1900년보다 이전에 나온 도서 및 그의 영인본, 신판자판, 번역서, 주해서
등은 그 원서의 저자표시의 첫머리에 오는 저자의 표목으로 올릴 형의 이
름, 저자가 없는 도서는 그의 통일서명을 (저자주기입법을 취하는 도서관
에서는 기본기입의 표목을) 대상으로 자모순 도서기호를 매기되 부차적
기호인 서명기호까지 매기고 난다음 연대기호를 매긴다. 다만 분류표상에
그 저자에 대한 특정한 분류항목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작의 이름
(표제)에 의해서 자모순 도서기호를 매기고 난 다음에 연대기호를 매기며,
저자에 대한 특정 분류항목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연대기호에
의해서 기본기호를 매긴다. (1.3조의 별법참조)

	리재철5표 Cutter-Sanborn	연세대도 Cutter
삼국유사/일연 저; 이민수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75 (자모순 도서기호 매김의 대상어는 “일연”)	일64사 75	일연 75
海東繹史/韓致雍 述. — 서울: 景仁文化社, 1974 영인대본의 발행사항: 京城: 朝鮮光文會, 明治45- 大正2[1912-1913] (자모순 도서기호 매김의 대상어는 “한치윤”)	한86 74하	한치윤 74
高麗圖經/徐兢 著. —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영인대본의 서명저자 사항과 발행사항: 宣和奉使高 麗圖經. — 京城: 近澤書店. 昭和7[1932]. — (朝鮮 學叢書; 1) (자모순 도서기호 매김의 대상어는 “서금”)	서17고 72	서금 72
에밀/루소 저. — 박석주, 박제구 공역. — 1968 (도서기호 매김의 대상어는 “Rousseau”)	R864 68	R362e 68

다만:

Hamlet / by William Shakespeare. —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4 (DDC 표상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분류번호가 822. 33으로 특정하게 마련되어 있어 서명인 “Hamlet”	822. 33 H3 64	822. 33 H18
--	---------------------	----------------

을 자모순 도서기호 매김의 대상으로 삼음)

성서 : 공동번역. -- 서울 : 대한성서공회, 1977 (DDC에 한국어 성경에 대한 특정번호가 220.5957로 배정되어 있어, 직접 연대기호를 매긴것임)	220.5957 77	220.5957 77
논어신석/이가원 저. -- 서울 : 통문관, 1956 (KDC에서 “논어”에 번호를 특정히 148.3으로 마련하고 있듯이 DDC도 고쳐쓰기를 하여 논어에 대한 번호가 특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56	56

3.7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주로 DDC 050대와 표준구분 -05를 갖는 분류항목, 및 071-079에 들어가는 간행물. KDC로는 050대와 형식구분 -05를 갖는 분류항목, 071-077에 들어가는 간행물)은 잡지명을 대상으로 자모순 도서기호를 매긴다.

	<u>리저철5표 Cutter-Sanborn</u>	<u>연세대도 Cutter</u>
신동아. -- 부간 제 1호(1964년 9월)-- 서울 : 동아일보사, 1964--	신25	신동아
학술원논문집. -- 제 1집-- 서울 : 학술원, 1959--	학56	학술원
도서관학/한국도서관학회. -- 제 1집-- 서울 : 동학회, 1970--	도54	도서관 한
Library trends. -- Vol. 1, no. 1(July 1952)-- Urbana, Ill. : University of Illinois Library School, 1952--	L697	L697
The New Yorker. --Vol. 1, no. 1(Feb. 21, 1925)-- New York : New Yorker Magazine, 1925--	N532	N532

4. 비평 · 해설 · 색인

어떤 특정한 저작(작품)에 대한 비평 · 경개 · 해설 · 자습서 · 지도서 · 색인 등의 저작은 먼저 그 대상(또는 대본)이 된 도서 또는 그의 특정판(해당판)을 상기 1조부터 3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도서기호를 매기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된 도서가 동서인 경우에는 “D”, 양서인 경우에는 “Y”란 부호를 적은 다음, * 손에 쥘 특정판의 연대기호를 매긴다.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비평 · 해설의 부호로, 동서 · 양서를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Y”로 통일해 쓰고 있음.

	리제철5표 Cutter-Sanborn	연세대도 Cutter
장편 「무정」과 그 독자미학적 연구/민병덕. — 1982	이'15 ㄱ82	이광수 ㄱ82
Emile을 통해본 Rousseau의 교육사상연구/이재석. — 1978	R864e Y78	R362e Y78
한국집진분류법해설/이병수. — 1968 (1964년에 초판된 도협 KDC 수정판(1966)에 대한 해설서임)	66ㄱ68	66Y68
삼국유사색인/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연구실 편집. — 1980	일6사 ㄱ80	일연 삼Y80
Handbook for AACR2 : explaining and illustrating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second edition / Margraret F. Maxwell. — 1980 (이 해설서의 대본이 된 AACR2의 발행년은 1978 임. AACR1의 발행년은 1967년인데, 1.3조의 별 법2를 적용하는 도서관에서는 도서기호가 “78 Y80 이 아니라 “67/1978/Y80”이 됨)	78 Y80	78 Y80

5. 도서기호의 배열

5.1 (총칙) 새 도서기호법에 의한 숫자기호는 연대기호·권차기호·복본기호의 어느 것을 막론하고 정수순으로 배열하되, 연대기호는 두자리 숫자(20세기를 위한 연대기호)를 먼저 배열하고 세자리 숫자(21세기부터 30세기를 위한 연대기호)를 나중에 배열하며, 문자기호는 가나다 ABC 순으로 배열한다.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83	83가	83가	83가	83히	83히	83히	83히	83히
		=2	=15	1	2	2=2	13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83a	83z	84	99	000	001	010	100	999

5.2 (연대기호와 저자기호의 병렬) 같은 분류항목 내에서 연대기호를 첫머리에 지닌 도서기호와 자모순 저자기호를 첫머리에 지닌 도서기호가 함께 병렬되는 경우에는 연대기호의 것을 먼저 배열하고 자모순 저자기호의 것을 나중에 배열한다.

181.11	181.11	181.11	181.11	181.11	193	193	193	193	193	193
79	83	이'68	이'95	정63	79	83	H462	K16	N677	S373

다만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와 같이 종전의 자모순 저자기호의 것과 새 연대기호의 것을 함께 혼배하는 곳에서는 종전의 저자기호의 것을 먼저 배열하고 새 연대기호의 것을 나중에 배열한다.

181.11 강재언	181.11 배종호	181.11 이 황	181.11 정약용	181.11 홍대용	913 B638	193 H361	193 K135	193 N558
193 Sch65	193 83	193 84						

또는 한글숫자식 저자기호법을 쓰는 도서관에서는 :

181.11 강72	181.11 백7	181.11 이'95	181.11 정63	181.11 홍2	193 B638	193 H462	193 K16	193 N677
193 S373	193 83	193 84						

Ⅴ.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구조에 대한 두어가지 변백

1. 기본기호(연대기호)의 구조에 대한 변백과 그 적용범위

필자의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1.1조에서 기본기호인 연대기호를 구조함에 있어 20세기 즉, 1900년대의 것은 그 햇수의 마지막 두자리 숫자를 기호로 삼고(예 : 1985년은 85), 21세기부터 30세기까지 즉, 2000년대의 것은 그 햇수의 마지막 세자리 숫자를 기호로 삼았으니(예 : 2085년은 085, 2185년은 185, 2985년은 985), 결국 필자의 연대기호법은 1100년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필자의 연대기호법에 서기 1900년보다 이전의 발행년을 위한 연대기호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한국 도서관계와 서지계에서 신서와 고서의 구분을 대체로 1910년을 분계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서만을 위한 연대기호에 그 이전의 것을 위한 기호의 마련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고서집서에 들어가는 고서들은 대부분 발행년(간사년)이 적혀있지 않아 실제로 연대기호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고서집서를 위한 도서기호법으로는 그 기호화의 대상이야 저자명으로 삼든, 서명으로 삼든 간에 속칭 저자기호법이라고 불리우는 자모순 기호법이 적합하다고 본다.

2. 부차적 기호중 문자기호의 구조에 대한 변백

동일한 연대기호내에서의 개별기호로, 동서는 가가거겨의 반절본문을, 양서는 abc의 로마자를 이용한 것은 동일한 연대기호내에서는 동서와 양서간을 구분해 주고, 동서와 양서의 편목시 타자에 용이로움을 주기 위함이다. 반절본문의 기본음절로는 한자(한음절)로 140개의 개별이 가능하며³²⁾ 로마자 한자로는 26개, 두자로는 52개, 세자로는 78개의 개별이 가능한데, 필자의 예상으로는 어떤 도서관이 동일한 주제(최세분의 분류항목)내에서 동일한 발행연도를 지닌 도서를 26개 이상 입수한다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므로 동서와 양서를 막론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기호 하나로 개별이 가능하다고 본다.

필자의 연대순 도서기호법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1983년 봄부터 채용하여, 1983년 이후의 발행년을 지닌 도서에 적용하고 있는데(1983년보다 이전의 발행년을 지닌 도서는 종전대로 자모순의 저자기호법에 의해서 도서기호를 매김), 지난 2년동안 1983년과 1984년의 연대기호내에서 중복되는 도서를 개별한 입수순 문자기호의 사용상황은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다.

이 표에서 우리는 부차적 문자기호를 전혀 붙이지 않고 기본기호인 숫자 연대기호만으로 개별을 끝낸 경우가, 1983년의 것은 56.5%, 1984년의 것은 61.81%, 두해 평균 61.16%이고, 입수순 문자기호를 덧붙여서 개별화한 경우는 평균 34.84% 밖에 안됨을 알 수 있다. 그 입수순 문자기호도 동서의 경우 1983년것에 대해서는 반절본문의 26번째 글자인 “도”, 1984년것에 대해서는 34번째 글자인 “려”까지, 양서의 경우 1983년것에 대해서는 로마자의 10번째 글자인 “j”, 1984년것에 대해서는 6번째 글자인 “f”까지 밖에 동원 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동서는 문자기호 하나면 언제나 족하고, 양서도 대부분의 경우 문자기호 하나—기껏해야 두개—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32. 동서의 경우, 만약 140개보다 이상의 개별이 필요할 경우에는 141번째것부터 ‘힉’, ‘힐’, ‘윈’, ‘힐’, ‘퀵’, ‘힉’,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와 같이 14개의 기본받침을 붙인 기호를 그순으로 매겨 154번째까지 구분하고, 그래도 기호가 딸릴 경우에는 ‘힐’자 기호 다음에 다시 가가거겨의 반절본문의 기본음절을 덧붙여 ‘힐가’, ‘힐가’, ‘힐가’, ‘힐가’, ‘힐가’, …식으로 구분해 나가면 문자기호 두개로 308개까지 개별할 수 있게 됨.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장서중 1983년과 1984년의 발행년을 지닌 도서의 동일 연대기호내의 수입순 문자기호 사용 비율표

(83년 4월부터 85년 5월 21일까지 매겨진 것에 의거한)

1983년의 발행년을 지닌 도서 :

1984년의 발행년을 지닌 도서 :

각분류항목 의 마지막 도서기호	1983년의 발행년을 지닌 도서 :		각분류항목 의 마지막 도서기호	1984년의 발행년을 지닌 도서 :	
	분류항목수	비율(%)		분류항목수	비율(%)
83	2,312	56.50	84	2,575	65.81
83가	439	10.73	84가	436	11.14
83가	182	4.45	84가	195	4.98
83거	116	2.83	84거	109	2.79
83겨	69	1.69	84겨	70	1.79
83고	37	0.90	84고	45	1.15
83교	42	1.03	84교	31	0.79
83구	26	0.64	84구	25	0.64
83규	10	0.24	84규	20	0.51
83그	8	0.20	84그	8	0.20
83기	7	0.17	84기	10	0.26
83나	5	0.12	84나	4	0.10
83냐	4	0.10	84냐	4	0.10
83너	6	0.15	84너	5	0.13
83녀	2	0.05	84녀	4	0.10
83노	3	0.07	84노	1	0.03
83뇨	2	0.05	84뇨	3	0.08
83누	1	0.02	84누	5	0.13
83뉴	3	0.07	84느	3	0.08
83느	2	0.05	84니	1	0.03
83다	3	0.07	84더	1	0.03
83다	1	0.02	84더	1	0.03
83도	1	0.02	84뉘	2	0.05
83도	1	0.02	84려	1	0.03
83a	664	16.23			
83b	90	2.20			
83c	33	0.81			
83d	7	0.17	84a	315	8.05
83e	9	0.22	84b	30	0.77
83f	4	0.10	84c	7	0.18
83g	1	0.02	84e	1	0.03
83h	1	0.02	84f	1	0.03
83j	1	0.02			
	4,092	99.98		3,913	100.04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2.1조에서 동일한 연대기호내에서 입수순 문자기호를 매겨 개별하는 대신 저자명의 첫자를 매기는 별법은, 도서기호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작업공정에 있어 유일기호를 주기 위해 서가목록을 일일히 참조하지 아니하고, 표와 규칙에만 의존해서 도서기호를 매겨 치우는 도서관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여 도서기호를 유일기호로 매기지 아니하고 어느정도 끝머리의 중복성을 인정하는 도서관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도서기호로써 유일기호를 갖는 것은 데일리(J.D. Daily)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서가의 배열이나 검색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³³⁾ 도서관의 제적과 퇴장별치(storage)의 빈도가 잦은 도서관에서는 별로 의미있는 일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 별법에 의해서도, 즉 저자명의 첫자 개별법으로도, 필자의 「한글순 도서기호법」의 2.9조를³⁵⁾ 적용해서 완전히 개별화된 유일 기호를 매길 수 있다.

필자의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원법(본법)은 필자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채용한 방식이고, 그의 제 별법은 그 원법에 이의를 가지거나 덜 선호하는 도서관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 도서관의 작업절차 등의 특성도 이 원법과 별법의 택일에 작용할 것으로 본다.

Ⅶ. 결 언

아무리 컴퓨터에 의한 문헌검색법이 발달되고 보급되어도 도서관의 이용자가, 그 전부이든 제한된 일부이든, 서가에의 접근이 허용되고 필요한 한은 도서기호법의 필요성도 존속할 것이다.

도서기호법은 동일한 분류항목내에서의 개별화 구실과 더불어 도서관 이용자가 자기에게 적합한 도서를 찾는 데, 그 선별과 검색의 범위를 좁혀주는

33. 양서의 경우 만약 동일주제의 도서가 동일연도에서 수백책 입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기호를 미리부터 'aa, ab, ac, ..., zx, zy, zz'식으로 매기면 문자기호 두개로 676개까지 개별할 수 있음.

34. Daily, J.E. "Classification and Catagorization".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5, p. 58

리재철, "한글·숫자기호법의 도서기호로서의 문제점", 人文科學(연세대), 第27·28輯(1972. 12), p. 210-211

35. 리재철, 한글순 도서기호법,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2, p. 30

구실도 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대순 도서기호법은 이제까지 나온 여러 도서기호법 중에서 가장 우월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현재와 같이 출판물의 홍수로 이용가치면에서 문헌의 도태속도가 빨라지고, 서가의 공간문제가 크게 대두된 시대에서는 새 자료와 묵은 자료를 확연히 구분지어주며, 기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서가공간을 조정해 주는 연대순 기호법이 어느 도서기호법보다도 현시대에 맞으며, 미래지향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번 소개하는 새 연대순 기호법은, (1) 비스코(Biscoe)나 메릴(Merrill)이나 랑가나탄(Ranganathan)의 것과는 달리 전혀 문자기호를 혼합하지 않고 숫자기호만으로 기본기호인 연대기호를 구성하여 동서와 양서의 편목시 청구기호를 타자하는데 용이롭게 한 점과; (2) 모든 분류항목에 일률적으로 연대기호를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傳記)와 인물평, 족보·세록(世錄)·가문의 인물지, 단체나 기관등의 조직체에 관한 도서, 개인의 문학 및 예술작품, 철학자와 사상가의 철학적 논저, 1900년보다 이전에 나온 도서 및 그의 영인본·신판·번역서·주해서, 연속 간행물 등을 위한 분류항목에서는 종래의 저자기호법에 따라 인물명이나 조직체명이나 서명을 대상으로 일단 자모순 도서기호를 매긴 다음에 연대기호를 덧붙여서 매기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이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은 필자가 1983년 봄에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위해 마련한 것을 다른 도서관에서도 채용될 수 있게 약간 수정한 것이다.

아직은 국내에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만이 유일하게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많은 도서관들이 자모순 저자기호법에 대치하여 이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채용하게 될 것을 필자는 믿는다.

종래의 저자기호법은 저자주기입법에 의존하여 그 기본기호의 표목을 대상으로 기호를 매겨 왔는데, 최근의 도서관 목록법에 있어서 그 기본기호론의 흔들림과 퇴조는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채용 시기를 한결 빨리 앞당기게 할 것이다.

A Study of New Chronological Book Numbers

Jai Chul Lee*

Abstract

In most of the modern libraries throughout the world, it is popular to adopt the author number which arranges the books or entries in alphabetical order of their author's names within the same ultimate class. However, viewed historically, that was the Western practice never used in the East before. Traditionally chronological order was followed in the East.

Book number not only individualizes the books within the same class but also makes it easy for the user to choose and find out the relevant materials. In this respect, chronological book number is decidedly superior to all kinds of book number systems ever have been existed. Especially in these days of rapid obsolescence of documents and with serious problems of storage of documents, the chronological order seems to be the most modern and future-oriented of all other book number systems because it distinguishes clearly new materials from aged materials by the date of publication and controls the stack spaces mechanically and effectively.

This writer devised New Chronological Book Numbers adaptable to both the Eastern and Western materials, and the system has been adopted at Yonsei University Library. The features of the system are as follows:

* Professor, Yonsei University

(1) It is easy to type the call number in cataloging the Eastern and Western materials. That is because the structure of the chronological number is pure numerical notation by taking the last two figures of the year within twentieth century(e.g. 85 for AD 1985), that is 1900s, and the last three figures of the year from twenty-first century to thirtieth century, that is 2000s.

(2) It does not make all classes have chronological number uniformly. Within the classes for individual biographies, genealogies and collections of biography of specific family, books about individual organization, individual literary and artistic works, philosophical works of the famous philosophers, books and its facsimile editions published before 1900, new editions, translations, commentaries, serials, chronological number is assigned to the author number as in the past.

(3) It separates the Eastern materials from the Western materials and makes the typing easy in cataloging. That is because the subarrangement within the same chronological book number is made by the accession order which uses “panjol-ponmun” or the characters of basic syllabic table of Korean alphabet in case of the Eastern materials and Roman alphabet in case of the Western materials.